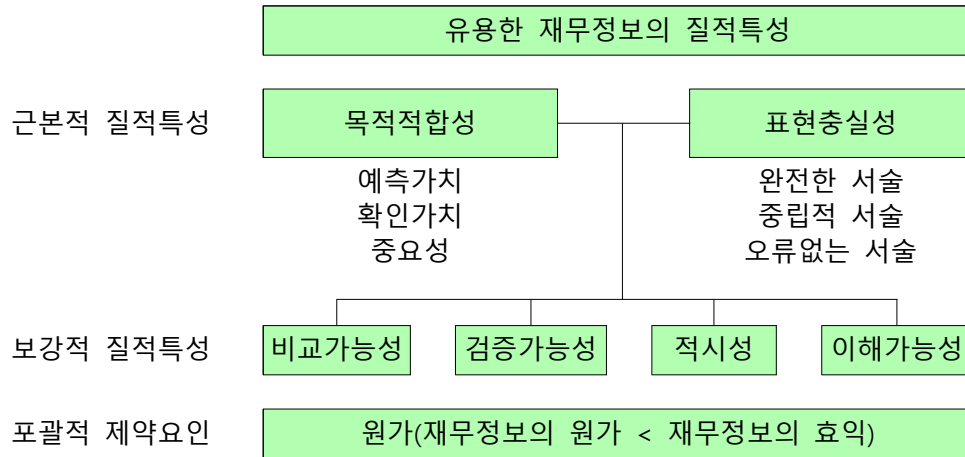


회계원리 최근 10년간 빈출지문 100문 정답

<재무정보의 질적 특성>

1. 근본적 질적특성은 []과 []이다.★★

--> 목적적합성, 표현충실성



2. 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[]가 나도록 할 수 있다.★★★

--> 차이

3.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특정 보고기업의 재무정보에 근거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이다.★★★ (O, X)

--> (O)

4. 목적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은 보강적 질적 특성이다. (O, X)

--> (X) 보강적 질적특성이 아니라 근본적 질적특성이다.

5. 완벽하게 표현충실성을 위해서 서술은 []하고, []이며, []가 없어야 할 것이다.★★

--> 완전, 중립적, 오류

6. 충실한 표현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한다.★★ (O, X)

--> (X) 충실한 표현은 완벽함을 달성하기 어렵다. 회계기준위원회의 목적은 가능한 정도 까지 그 특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. 따라서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.

7. 어떤 재무정보가 []나 [] 또는 이 둘 모두를 갖는다면 그 재무정보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게 할 수 있다.★★

--> 예측가치, 확인가치

8.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예측가치 또는 예상치이어야 한다.★★★
(O, X)

--> (X) 예측가치는 미래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의 투입요소로 사용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자체가 예측치일 필요는 없다.

9. 재무정보가 과거 평가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[]를 갖는다.★★

--> 확인가치

10. []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에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.★★★

--> 적시성

11.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시키는 질적특성에는 비교가능성, 검증가능성, 중요성 및 이해가능성이 있다.★ (O, X)

--> (X) 보강적 질적특성에는 비교가능성, 검증가능성, 적시성 및 이해가능성이 있으며, 중요성은 근본적 질적특성 중 목적적합성의 하부 특성이다.

12. []은 정보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이다.★★★

--> 비교가능성

13. 어떤 정보의 누락이나 오기로 인해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이 바뀔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정보이다. (O, X)

--> (O)

14. 검증가능성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표현 충실성이라는 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.★★★ (O, X)

--> (O)

15. 검증가능성은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히 표현하는지를 정보이용자가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는 근본적 질적 특성이다.★★ (O, X)

--> (X) 검증가능성은 근본적 질적 특성이 아니라 보강적 질적특성이다.

<일반목적재무보고(재무제표)>

16. 자산은 현재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미래의 경제적 자원이다.★★ (O, X)
--> (X) 현재사건 → 과거사건
17. 자산 측정기준으로 역사적원가는 현행원가와 비교하여 적시성이 더 높다. (O, X)
--> (X) 현행원가가 역사적원가와 비교하여 적시성이 더 높다.
18. 현행원가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이다. (O, X)
--> (X) 공정가치에 대한 설명이다.
19. 수익은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로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온다.★★ (O, X)
--> (X) 수익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로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온다.
20. 재무제표의 목적은 광범위한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, 재무성과와 재무상태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. (O, X)
--> (O)
21. 각각의 재무제표는 전체 재무제표에서 동등한 비중으로 표시한다. (O, X)
--> (O)
22. 전체 재무제표(비교정보를 포함)는 적어도 []마다 작성한다.★★
--> 1년
23.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.★★
(O, X)
--> (O)
24. 일반목적 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측정하여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.★★ (O, X)
--> (X) 일반목적 재무보고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측정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, 보고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의 자료를 통하여 가치를 추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.

25. 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[]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.★★
★
--> 발생기준
26.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에 따라 공시되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 공시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. (O, X)
--> (O)
27.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. (O, X)
--> (O)
28.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해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한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.★★★ (O, X)
--> (X)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정당화될 수 없다.
29.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를 표시한다.★★★ (O, X)
--> (O)
30.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않는다.★★ (O, X)
--> (O)
31.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.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.★★ (O, X)
--> (O)
32. 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다.★★★ (O, X)
--> (O)
33.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은 단일의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 표시할 수 없다.★★ (O, X)
--> (X)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은 단일의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 표시한다.

34.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지 않는 경우 재무제표의 표시통화를 천 단위나 백만 단위로 표시할 수 있으며 금액 단위를 공시해야 한다.★★ (O, X)

--> (O)

35. 비용의 성격별 또는 기능별 분류방법 중에서 신뢰성 있고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비용의 분석내용을 표시한다.★★ (O, X)

--> (O)

36. 재무상태표는 일정기간의 재무성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. (O, X)

--> (X) 재무상태표는 일정기간이 아니라 일정한 시점의 재무상태 정보를 제공한다.

37.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. (O, X)

--> (X)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시점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동안의 재무성과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.

<회계감사>

38. 감사의 목적은 의도된 재무제표 이용자의 신뢰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.★★ (O, X)

--> (O)

39. 회계감사는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의견표명을 목적으로 한다. (O, X)

--> (O)

40. 재무제표가 중요성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면 []이 표명된다.

--> **적정의견**

41.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한 결과,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중요하나 전반적이지는 않으면 []이 표명된다.★★

--> **한정의견**

42. 의견거절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위배한 정도가 커서 재무제표가 중대한 영향을 받았을 때 표명된다. (O, X)

--> (X) 부적정의견

<회계순환과정>

43. 분개란 복식부기의 원리를 이용하여 발생한 거래를 분개장에 기록하는 절차이다. (O, X)

--> (O)

44. 분개장의 거래기록을 총계정원장의 각 계정에 옮겨 적는 것을 []라고 한다.

--> 전기

45. 시산표는 통상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이전에 거래가 오류 없이 작성되었는지 자기검증하기 위하여 작성한다. (O, X)

--> (O)

46. 시산표는 결산 이전의 오류를 검증하는 절차로 원장 및 분개장과 더불어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한다. (O, X)

--> (X) 시산표는 기중 거래가 오류 없이 작성되었는지 대차평균원리로 합계나 잔액을 통해 검증하는 일람표이며 필수적 사항이 아니다.

47. 시산표의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하더라도 계정분류, 거래인식의 누락 등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수 있다.★★ (O, X)

--> (O)

<금융자산>

48. 지분상품은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. (O, X)

--> (O)

49. 금융자산은 매 회계연도 말 지분상품은 []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다.

--> 공정가치

50. 취득한 사채(채무상품)를 기타포괄손익-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취득과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에 가산한다. (O, X)

--> (O)

51. 기타포괄손익-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수령액은 기타포괄이익으로 계상한다. (O, X)

--> (X) 기타포괄손익-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배당금은 기타포괄손익이 아니라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 한다.

52. 최초 인식시점에서 기타포괄손익-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면 이후 회계연도에는 당기손익-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없다. (O, X)

--> (O)

53. 기타포괄손익-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[]을 처분할 경우 기타포괄 손익누계액에 누적된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.

--> 채무상품

54. 이자수익은 매 보고기간 말의 현행 시장이자율을 이용하여 인식한다. (O, X)

--> (X) 이자수익은 발행(취득) 당시의 시장이자율을 이용하여 인식한다.

<재고자산>

55. 컴퓨터 제조기업이 고객관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사가 제조한 컴퓨터는 재고자산 이다. (O, X)

--> (X)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의 자산은 재고자산이 아니라 유형자산이다.

56. 부동산매매기업이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건물은 [] 으로 구분한다.★★

--> 재고자산

57. 재고자산 매입시 부담한 매입운임은 운반비로 구분하여 비용처리한다. (O, X)

--> (X) 운반비로 구분하여 비용처리한다.→ 매입원가에 가산한다.

58.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,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한다.★★ (O, X)

--> (O)

59.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가격에 매입할인, 리베이트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을 가산한 금액이다. (O, X)

--> (X)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가격에서 매입할인, 리베이트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을 차감한 금액이다.

60.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항목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화의 원가는 []을 사용하여 결정한다.★★

--> 개별법

61.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입 또는 생산된 재고자산이 기말에 재고로 남아 있고 가장 최근에 매입 또는 생산된 재고자산이 판매되는 것을 가정한다. (O, X)

--> (X)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입 또는 생산된 재고자산이 매출원가를 구성하고, 가장 최근에 매입 또는 생산된 재고자산이 기말재고자산이다.

62. 선입선출법 적용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, 계속기록법에 의한 기말재고자산 금액이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한 기말재고자산 금액보다 작다.★★ (O, X)

--> (X)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경우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의 기말재고액은 동일하다.

63. 총평균법은 계속기록법의 의하여 평균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상품의 매입시마다 새로운 평균단가를 계산한다. (O, X)

--> (X) 총평균법 → 이동평균법

64.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[] 금액으로 측정한다.

--> 낮은

65.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는 원재료 및 기타 소모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.★★ (O, X)

--> (O)

66.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. (O, X)

--> (O)

<유형자산>

67. 기업이 판매를 위해 1년 이상 보유하며, 물리적 실체가 있는 것은 유형자산으로 분류된다. (O, X)
--> (X) 판매목적의 자산은 재고자산이다.
68. 유형자산과 관련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가동손실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.★★ (O, X)
--> (X) 초기 가동손실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.
69. 기업의 영업 전부를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.★★ (O, X)
--> (O)
70.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는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된다.★★ (O, X)
--> (X)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
71. 유형자산 취득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된다. (O, X)
--> (O)
72. 기업은 유형자산 전체에 대해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동일하게 적용한다.★★ (O, X)
--> (X) 유형자산 분류별로 적용한다.
73. 감가상각대상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, 그 자산의 최초원가를 재평가금액으로 조정하여야 한다. (O, X)
--> (X) 상각후 장부금액을 재평가금액으로 조정하여야 한다.
74. 최초 재평가로 인한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한다.★★ (O, X)
--> (X) 유형자산 재평가의 경우 최초 평가 시 평가 증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, 평가 감은 재평가손실로 당기손익에 반영된다.

75. 유형자산 항목과 관련하여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없다. (O, X)
--> (X) 유형자산 항목과 관련하여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다.

76.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하며,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미래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반영한다. (O, X)
--> (O)

77.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을 회계 []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.★★
--> 추정

78. 잔존가치와 내용연수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. (O, X)
--> (O)

79.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총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한다. (O, X)
--> (X) 총매각금액 → 순매각금액

<무형자산>

80.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한 화폐성자산이다. (O, X)
--> (X) 무형자산은 비화폐성자산이다.

81.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상각하고,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한다.★★★ (O, X)
--> (O)

82.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한다.★★★ (O, X)
--> (O)

83.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. (O, X)
--> (X) 내용연수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추정의 변경이다.

84.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. (O, X)

--> (O)

85. 무형자산은 유형자산과 달리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없으며 원가모형을 적용한다.★★

(O, X)

--> (X) 무형자산은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.

86.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인식하지 않는다. (O, X)

--> (X)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인식한다.

<충당부채>

87.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고,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한다. (O, X)

--> (O)

88.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,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한다.★★ (O, X)

--> (X) 충당부채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고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하여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한다.

89. 충당부채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부채이나 우발부채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수 없고 주석으로만 기재될 수 있다.★★ (O, X)

--> (O)

90.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한다. (O, X)

--> (X) 예상되는 자산처분이익, 미래 예상되는 영업손실은 충당부채 측정에 고려하지 않는다.

91.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이 중요한 경우에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[]로 평가한다.

--> **현재가치**

92. 총당부채는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의무이행 시 예상되는 지출액을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평가한다.★★ (O, X)
 --> (X) 총당부채는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이 중요하다면 의무이행 시 예상되는 지출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(현재가치)으로 평가한다.

93. 총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기 위한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후 이율이다.★★ (O, X)
 --> (X) 총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기 위한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다.

<자본>

94. 주식 발행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원가는 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. (O, X)
 --> (X) 주식 발행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원가는 자본(발행금액)에서 차감한다.

95. 유상증자시에 자본금은 증가하나 자본총액은 변동하지 않는다. (O, X)
 --> (X) 자본총액은 증가한다,

96. 무상증자 시에는 납입자본과 자본총계가 모두 증가한다.★★ (O, X)
 --> (X) 무상증자 시에는 납입자본과 자본총계가 모두 불변이다.

97. 유상감자는 자본금의 감소로 소멸되는 주식의 대가를 주주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실질적 감자에 해당한다. (O, X)
 --> (O)

98. 주식배당시에 자산총액과 자본총액은 변동하지 않는다. (O, X)
 --> (O)

99. 주식분할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여도 액면가액은 변동이 없다. (O, X)
 --> (X) 액면가액은 감소한다.

100. 임의적립금은 주주총회의 의결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한 후 배당할 수 있다.★★ (O, X)
 --> (O)